

# 하야시 후미코의 『소용돌이치는 바닷물』론

## - 인습을 극복한 전쟁미망인과 복원병 -

이상복\*  
sblee@syu.ac.kr

### <目次>

- |                 |               |
|-----------------|---------------|
| 1. 서론           | 3. 인습을 극복한 사랑 |
| 2. 전후 일본 사회의 양상 | 4. 결론         |

主題語: 인습(Convention), 전쟁미망인(War Widow), 전후(The postwar), 불안(Uneasiness), 복원병(Demobilized soldier)

## 1. 서론

전후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최초 조간소설에 발표된 『소용돌이치는 바닷물(うず潮)』<sup>1)</sup>은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가 1947년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아들 다이(泰, 4세)를 데리고 관서(關西)여행을 하면서 구상<sup>2)</sup>한 작품으로, 영화와 드라마화<sup>3)</sup>가 되기도 하였다.

후미코는 여성작가로서는 최초로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와 함께 “펜부대(ペン部隊)”<sup>4)</sup>요원으로 전장에 참여하기도 하여 “전쟁협력자”로 불리기도 하였지만, 전후 거리에 넘쳐나는 “가키 색의 복원병들”과 “몸베차림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이 전쟁의 죄악을 써서 남기는 것이 작가로서의 사명”<sup>5)</sup>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불안한 사회 적응이 어려운 복원병과 “전쟁으로 가장 비참해진 미망인의 삶”<sup>6)</sup>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 1) 『소용돌이치는 바닷물』은 1947년 8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조간에 연재, 1948년 2월 신조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 2) 尾形明子(1998) 『『うず潮』』『国文学 解釈と鑑賞』63(2), 至文堂 p.122
- 3) 『소용돌이치는 바닷물』은 1964년 4월 6일부터 1965년 4월 3일까지 방송된 TV 소설(아침 드라마, 제4부작)로 NHK오사카(大阪) 방송국이 제작한 제1호 아침 드라마이기도 하다.
- 4) “펜부대”는 이른바 “중군기자”로,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내각정부부에 의해 결성되어 군대와 행동을 함께하며 전황(戰況)을 후방에 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 5) 福田清人·遠藤充彦(1966) 『『うず潮』』『林芙美子 人と作品』15, 清水書院, p.149

이 『소용돌이치는 바닷물(うず潮)』은 출발이 신문소설인 만큼 그 시대의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전쟁미망인과 복원병의 사랑을 주제로 한 “전쟁미망인 소설”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작품의 여주인공 다카하마 지요코(高浜千代子, 25세)는 5년이나 기다리던 남편 요타로(要太郎)의 전사 소식을 듣고 제일먼저 아들 유이치(悠一, 5세)를 데리고 교토(京都)에 사는 큰오빠 요시아키(義明, 39세)를 찾아간다. 그때 요시아키 집에 놀러와 있던 스기모토 고키치(杉本晁吉, 요시아키의 중학교 친구<sup>8)</sup>)와 지요코가 우연히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전쟁미망인과 복원병의 사랑이 시작된다. 그리고 스기모토의 동생 겐지(健二)가 사랑하는 여자 가나이 유리코(金井百合子) 역시 전쟁미망인이다.

동생 겐지는 부모님의 반대로 유리코와 헤어지지만, 형 스기모토는 지요코와 유이치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여 결혼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형제의 사랑을 대비시켜 전쟁미망인의 다양한 재혼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용돌이치는 바닷물』이 단순히 “전쟁미망인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전쟁미망인에 대한 사회적 규레이기도 한 인습의 절대성을 지요코처럼 어린 자식을 부양해야만 하는 전쟁미망인과 복원병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작가 후미코가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2. 전후 일본사회의 양상

다음 인용문에서 작가 후미코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진 일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 전쟁이 모든 인간의 생애를 저버렸다. 모두가 너무 변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혼자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황량한 세태에 밀려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끝도 없는 긴 여정을 느꼈다.<sup>9)</sup>

6) 상계서, p.151

7) 竹内榮美子(2010)「林芙美子『うず潮』」『日本古書通信』75(11), 日本古書通信社, p.29

8) 스기모토 고키치(杉本晁吉)와 스기모토 겐지(健二)는 형제이다. 그러나 작가는 텍스트에서 스기모토 고키치를 스기모토로, 스기모토 겐지는 겐지로 표기하고 있어 논문에서도 ‘스기모토’와 ‘겐지’로 표기함.

9) 원문 인용은 『うず潮』(『林芙美子全集』12권, 新潮社, 1952)에 따름. ()안의 숫자는 페이지를 나타냄. この戦争が、あらゆる人間の生涯を裏切ってしまった。四圍一面が、あまりに変貌してしまっている。自分独りが不幸だとは云いきれない。荒涼とした世相に押されて、立ちなおれないような、果てしのない長い旅路を感じて来る。(p.18)

전쟁 때문에 인간의 인과적인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고, 각자가 무언가를 찾아 헛수고 하다 지쳐 이젠 살아가고 있다가 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상태이다. 10)

전후 서민들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매몰되어 버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세계의 반응도 회피할 수 없다고 후미코는 스기모토를 통해 밝히고 있다.

좁은 일본에 갇혀 있는 일본인에 대한 세계의 제재가 돌덩어리처럼 느껴진다. 그 반응이 조금씩 색채를 띄우며 나타나고 있다고 스기모토(杉本)는 생각했다. 일본인 모두가 그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작은 수술대 위에서 이 민족이 수술을 받고 있는 것이다. 11)

또한, 일본이 “하룻밤에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여 거대한 부를 얻고 싶다는 모험적인 공상”(p.115)에서 시작한 전쟁으로 세계인에게 고통을 안겨준 만큼, 전후 일본인은 “작은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심정이라고까지 적고 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독재자인 미술사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역사가 계속될 것인가”라며, 누군가가 침략전쟁을 또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보인다.

이 전쟁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각자의 감정에 남아있는 고통. 세계로부터의 공격으로 일본인 개개인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거지처럼 열정도 없이 침울해져 있다. (중략)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은 자유다. 그 이외 지금 세상에 일본인에게 무슨 자유가 주어지겠는가. 12)

이와 같이 전쟁 중에는 식량과 의류 등 생활필수품의 결핍으로, 전후에는 “국민의 가정생활은 파멸직전의 상태”<sup>13)</sup>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로부터의 공격”도 피해갈수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일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후미코의 다른 작품에서는 거의 찾아볼

10) 戦争のおかげで、人間の因果的なつながりもぷつぷつと切断されて、各々が何かを探し求めて徒勞に疲れ果て、生きてゆくより仕方がないといったかたちだ。(p.103)

11) 狭い日本に閉じこめられた、日本人への世界の制裁がつぶてのように意識される。その反応が少しずつ色彩になって現われて来たのだなと杉本は思った。日本人の一人々々が制裁を受けているのだ。小さい手術臺の上でこの民族が手術を受けているのだ。(p.114)

12) この戦争の苦味い記憶が、いまなお不可癖なものとして、一人々々の感情にとどまっている苦痛。世界からの攻撃に向つて、日本人の一人々々が氣弱になり果てて乞食のような情熱のなさに落ちこんでいる。(中略) 心で思う事だけは自由である。それ以外に、いまの世に日本人に何の自由が与えられているだろうか。(p.114)

13) 永原慶二(1984)『國際情勢の推移と日本』『高等學校 日本史』學校圖書株式會社, p.314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한 서민들의 고통을 『소용돌이치는 바닷물』에서 여가 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후미코는 지요코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지요코는 유이치를 출산할 당시 군대 가지 않는 여자아이를 원했다.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불구”였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신체가 건강하자 손가락이라도 부러뜨려 “불구”로 만들고 싶을 정도였다.

“처음에 여자아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남자 아이여서 실망했어요. 또 군대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전쟁이 백 년이나 계속된다고 했잖아요……그래서 지금에야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나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불구라면 좋겠다고 기도할 정도였어. 가끔 지금이라도 손가락을 부러뜨릴까 하고 생각할 정도야. 어떻게 해서든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sup>14)</sup>

이런 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정부는 1940년 5월 국민우생법을 공포하고, 연이어 1941년에는 건강한 아이 출산과 조혼에 의한 인구 증가를 위해 국민우생연맹에서는 “전시하의 모성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심훈”<sup>15)</sup>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금후 10년 동안에 혼인 연령을 현재에 비해 거의 3년 정도 앞당길 것과 자녀 출생수도 평균 5명을 목표로”<sup>16)</sup>로 설정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10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을 “우량 다자녀가정”으로 표창하기도 하였다. 이런 전쟁 장기전을 대비한 일본의 인구정책으로 인해 전쟁미망인은 더욱 늘어나, 1947년 이 작품이 발표될 당시의 “우생성 아동국의 조사에 의하면 56만 명을 초과하는 전쟁미망인이 공포되었지만 실제 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다.”<sup>17)</sup>

그리고 도시 곳곳에 타다 남은 빌딩이 괴물처럼 서 있는 사이로 임시 피난처인 “작은 판잣집 군락”이 있었다. 이런 황폐한 모습을 보며 “쉽게는 건널 수도 없는 넓은 바다가 길손을 기다리

14) 「初めは女の子がいいと思つたんだけど、男の子で、がっかりしちやつたのよ。また、兵隊だと思つて。だつて、戦争が百年もつづくつて云つていたでしょう……だから、今でこそ笑い話で云えるけれども、私、このひとが生まれると、すぐ、不具ならいゝと祈つた位だわ。時々、いまのうちに指でも折つてやろうかなんて考えたものなの。何とかして兵隊にやりたくないと思つて。。。」(pp.15-16)

15) 결혼 심훈: ①일생의 반려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 ②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선택할 것. ③서로 건강증명서를 교환할 것. ④나쁜 유전자가 없는 사람을 선택할 것. ⑤근친결혼을 가급적 피할 것. ⑥가능한 한 빨리 결혼할 것. ⑦미신과 인습에 얽매이지 말 것. ⑧부모나 윗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것. ⑨식은 간소하게 신고는 당일 할 것. ⑩나를 위해 낳아서 기를 것.

16) 「인구정책확립요망」의「제 4, 인구증가 방책」(1941년 1월 22일 내가 회의에서 결정)  
岩淵宏子(2005)「昭和初年代から敗戦までの女性文學」『はじめて学ぶ日本女性文學史』ミネルヴァ書房, p.180

17) 상계서, p.178 참조

고 있는 듯한 느낌”(p.18)이 들 정도로 재건은 요원해 보이기까지 했다.

1949년 후미코가 발표 한 『뜬구름(浮雲)』에서도 사방을 둘러봐도 “폐전의 참담”하고 “치참한 형상만이 계속 이어져 있”어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걸까”(『新潮日本文學』22 新潮社, 1971, p.6)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게다가 민심까지 흉악해, 옷을 빨아 “햇빛에 말리는 동안”에도 흠쳐 가버릴 정도로 “대낮에도 도둑”이 들끓어 마음 놓고 생활할 수도 없었다. 1951년에 발표 한 『밥(めし)』에서도 주식인 “쌀값 파동”과 “치안문제”에 대해 적고 있다.

“요시다씨, 댁도 구두를 도둑맞았습니까?”

방 한 쪽에서 요시다씨의 부인과 아이들이 즐지어 나왔다.

“어휴 남편 구두를 잠깐 사이에 가져갔어요. 오카모토씨 구두도 흠쳐갔나요?”

“제 것도 방금 전에 없어졌어요. 산지 얼마 안 된 것을 도둑맞았어요.”(『밥』<sup>18)</sup>)

남자 주인공 오카모토 하쓰노스케(岡本初之輔)는 하는 수 없이 낡은 헌 구두를 신고 회사에 출근했다. 그 만큼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 까지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생활해야만 했다.

이런 불안한 사회로 4년 만에 돌아온 복원병 스키모토 고키치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간신히 친구의 도움으로 취업을 했지만 현상유지가 힘들어 시계를 팔기도 하고, 시골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부쳐 받기도 했다. 이런 일은 스키모토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회사 동료도 모두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처분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다. 『소용돌이치는 바닷물』 연재시(連載時)에는 “일본의 미래는 막막한 상태”<sup>19)</sup>이었으며, “엄청난 불경기”가 다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만이 지금의 인간에는 최선인 것이다. 회사에서 돌아와 초라한 식사를 하고 잔다. 그런 일상 속에서 도쿄의 문명은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내며 귀를 피곤하게 할 따름이다. 스키모토는 때때로 자살 할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20)

18) 원문 인용은『めし』(新潮文庫, 1977)에 따름. ()안의 숫자는 페이지를 나타냄.  
「吉田さん、お宅も、靴、盗まれたのですか?」奥の部屋から、吉田さんの細君や子供達が、どやどやと出て来た。「へえ、いま、ちょっとの間に、お父ちゃんの靴、持ってかれましたン。岡本さんものでっか?」「僕のところも、いまなんですよ。買ったばかりの奴を、やられましたよ」(『めし』p.26)  
19) 羽矢みずき(2006)「林芙美子『うず潮』論-隠蔽された<戦争未亡人>」『日本文学』55(11), 日本文学協会, p.9  
20) 今日一日を過ごす。それだけが、いまの人間には精いっぱいのところだ。会社から戻つて、とぼしい食事をして、それで眠る。その日常のなかに、東京の文明はひどい歯車の音を立てて耳をろうするばかりだ。杉本は時々自殺の事を考える時があつた。(p.97)

하루하루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특히 “출정가족이나 유족의 생활”은 “경제적”인 문제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곤란”하여 “가정생활은 파멸직전의 상태”<sup>21)</sup>가 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전쟁미망인의 실상은 더욱 심각했다.

출정한 남편 전사로 전쟁미망인이 된 지요코는 가끔 “이봐 지금 돌아왔어”하고 건강한 목소리로 들어 올 것 만 같은 환상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지요코에게 남은 가족은 아들 유이치(悠一, 5세)와 큰오빠 요시아키(義明, 39세) 뿐이었다. 작은 오빠 다카오(隆雄, 36세)는 육군대위로 전쟁에 나가 7년째 시베리아에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아직 복원하지 않았으며, 언니 마사코(昌子, 29세)는 오사카에서 전화(戰火)로 인해 아이가 유산되자 그 후유증으로 끝내 사망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지요코는 유일한 혈육인 요시아키를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요시아키도 직장을 잃고 불안한 상태에 있어 지요코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요시아키는 지금 이 사회에서 자신과 같은 “추랑자(追浪者)”와 지요코와 같은 “미망인”이 셀 수 없이 많으므로 스스로 일을 찾아 살아 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너 혼자 불행한 게 아니야. 나도 추랑자이고 당분간 교사일도 할 수 없게 되면, 뭔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만 해. 무엇보다 야인(野人)이 되어 세간에 나와 보니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겠어. 너 같은 미망인도 발에 채일 만큼 많이 있고, 나 같은 추랑자도 발에 채일 만큼 많아. 그렇다고 이 나이에 자살 할 용기도 없고, 아무래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sup>22)</sup>

마침 오빠 집에 놀러 와 있던 스기모토 고키치에게 요시아키는 지요코를 “전쟁 희생자” “미망인”이라 소개한다. 스기모토 고키치는 결혼해서 일 년 만에 부인이 사망하고, 다시 연애 하던 여자는 고키치가 전장에 가 있는 2년 동안 변심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렸다. 자포자기 하여 2년을 더 나가 있었으니 4년을 전장에서 보낸 것이다. 전후 스기모토는 참혹했던 전장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막상 전쟁미망인을 만나니 자연히 그때의 일들이 생각났다.

미망인인가. 어두운 곳에서 표류하는 여자의 슬픈 얼굴이 몇 명인가 스기모토의 눈앞에 떠올랐다. 진홍의 화염 속에 병사가 차례차례 웃으며 죽어간다. 기억속의 의식. 빛을 잃어가는 병사의 얼굴.

21) 永原慶二(1984)『國際情勢の推移と日本』『高等學校 日本史』學校圖書株式會社, p.314

22) 「お前だけが不幸なんじゃないよ。俺だつて追浪者で、当分教師も出来ないとなれば、何か、前途のことも考えなければならん。第一、野人になつて、世間へ出てみれば、もの見分けというものさつぱり判らん。お前のような未亡人も掃き捨てるほどいる。俺のような追浪者も掃き捨てるほどいる。だからといつて、この年になつて、自殺をする元氣もなしね。どうにも仕方がないじゃないかね。」(p.4)

세상은 아슬아슬했다. 하나하나 운명의 결과가 거리낌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은 스기모토의 마음에는 아픔이었다. 고국에 돌아오면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지만 기억 속에서 빨리 지워지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 기억의 색이 바래져가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sup>23)</sup>

스기모토는 전장에서의 비참한 실상을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 피해자들을 보면 다시 악몽이 되살아나 전쟁이 끝나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복원병이나 출정한 남편 사망으로 남겨진 미망인이나 고통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스기모토는 억지로라도 전장에서의 아픈 기억들을 세월의 흐름에 묻어두려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요코는 지금부터 험난한 길을 혼자 개척해나가야 했다.

이렇게 전후 전쟁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서민들도 불안한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데다 세계의 지탄도 감수해야만 하는 전후 일본의 사회상을 후미코는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 3. 인습을 극복한 사랑

전후 “GHQ의 지시아래 중의원의원 선거법 개정(1945년12월 17일)에 의해 부인참정권이 확립되어, 1946년 4월10일 선거에서는 39인의 최초 여성변호사가 탄생하는 등 여성이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전쟁미망인의 존재는 묵살<sup>24)</sup>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지식인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있었지만 전쟁 피해자들, 특히 미망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지요코처럼 아이가 있는 전쟁미망인은 일자리조차 찾기 너무 힘들었다. 지요코는 유이치를 맡길 보육원을 소개받기 위해 학교 영어 교사였던 다니자키 교코(谷村京子) 댁을 방문하였다.

“당신도 앞으로 고생이겠어요. 아직 젊은데. 하지만 당신처럼 곤란한 생활환경에 있는 사람이

23) あゝ未亡人か。暗がりの中にただよう、女の哀しい顔つきが、いつか杉本の臉に浮ぶ。真紅の火焰のなかに、兵隊が次々笑つて死んでゆく。思いでのなかの意識、明滅する兵隊の顔。地上すれすれのところできまる、一つ一つの運命の結果が、遠慮えしやくもなく続いている。戦争の思い出は、杉本の心には痛かつた。故国へ戻したら、その日から何も思うまい、考えまいと思つたが、想いでは中々手早く切りとるわけにはゆかない。月日をまつて、思いでの色あせてゆくのを頼むより仕方がない。(p.9)

24) 羽矢みずき, 전게서, p.3

꽤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없는 여자는 많죠? 전쟁의 미망인의 문제도 중대해요.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수산소<sup>25)</sup>같은 곳을 많이 만들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해요. 노동 문제는 꽤 활발한데 전쟁미망인이나 귀환자의 미망인 등의 문제는 의외로 대두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여성이 너무 암전하기 때문이에요.”<sup>26)</sup>

독신으로 지내며 종교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교코는 지요코가 처해 있는 입장을 안타까워 하며 미망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행히 교코의 도움으로 유이치를 보육원에 맡길 수 있게 된 지요코가 요릿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지요코는 평소 요릿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경멸했지만 “어떻게든 살고 싶다”(p.34)는 생각에 무슨 일이든 할 수 밖에 없었다. 지요코처럼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거의 경제적으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키코는 아사쿠사에서 전재(戰災)를 당해 남편과 7살 된 남자아이를 잃었다. 그 후 경음악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남자와 함께 했지만 지금은 헤어져서 홀가분하다고 입버릇 처럼 말한다. 스키에는 내몽골에서 온 귀환자로 직장이 없는 병약한 남편과 아이를 가와사키에 있는 친구 집에 맡기고 근무하는 친절하고 좋은 여자이다. 모두 30세 전후의 연배로 지요코가 여기서는 가장 젊다.<sup>27)</sup>

지요코가 이들과 어울려 그런대로 적응을 하고 있을 즈음, 주인 세토 유사쿠(瀬戸雄作)가 지요코에게 관심을 보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분노하여 지요코를 내쫓았다. 보통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전쟁미망인들이 “사회의 성가신 존재로 냉대를 받으며, 이목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아이와 생활이 궁핍하여 창부 등으로 전락<sup>28)</sup>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인은 지요코가 자신의 남편을 먼저 유혹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25) 수산소(授産所):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살길을 열어주려고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곳.

26) 「あなたも、これから大変ね。まだお若いのだし。でも、あなたのように、困った生活環境の方が、随分あると思うのよ。子供を連れて働けない女のひとつて、多いんでしょう？戦争の未亡人の問題も、由々しい事です。国家で、そんな方たちの為に、沢山授産所のようなところをつくって、働く道を考えてやるべきよね。労働問題なんかはなかなか活発になつていのに、戦争未亡人とか、引揚者の未亡人なんかの問題は、案外ぱつと燃えていないというのは、日本の女性がおとなしすぎるんだわ。」(p.33)

27) 秋子は浅草で戦災にあい、良人と七つになる男の子を亡くしていた。その後、軽音楽のピアノを弾く男と一緒にいたのだそうだけれども、いまは別れてさばさばとした口癖に云っている。澄江はハイラルからの引揚者で、職場のない病身な良人と子供を川崎の友人の家にあずけての勤めで、親切な人のいゝ女であつた。みな三十前後の年配で、千代子だけがこゝでは一番若い。(p.61)

28) 羽矢みずき, 전계서, p.9

요릿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요코가 쌓인 피로와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지자 보다 못한 아키코가 자신의 친정집에서 쉬게 한다. 그때 스기모토가 아키코의 도움으로 병상에 있는 지요코를 찾아 온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스기모토의 어머니로부터 전보가 왔다. 스기모토의 신부감이 있으니 와서 맞선을 보라는 편지였다. 그러나 스기모토가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겐지가 결혼 한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출정하여 사이판에서 전사한 전쟁미망인 유리코와의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편지를 부모님께 보냈다. 부모님은 스기모토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겐지의 일을 생각해 보자면서도, 자신들보다 시골 동네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너의 편지에 쓰인 미망인이라는 사실이 시골에서는 심하게 구애받을 수밖에 없으며, 너는 아직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편지였다.<sup>29)</sup>

당시 일본 정부는 “전쟁피해자로서의 미망인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재혼”을 “가장 효율적인 미망인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반에게 널리 장려”<sup>30)</sup>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전쟁미망인의 결혼에 대한 정부 시책에 전혀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겐지는 유리코에게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자고 권유한다.

미망인이라고 하는 숙명, 시골 사람들은 마치 여자의 전과와 같이 생각하고 있기는 하나 당신을 데리고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마음의 응어리는 전부 해소 될 거라고 겐지는 몇 번이나 설명했으나 유리코는 오직 완고한 마음으로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sup>31)</sup>

유리코는 “미망인”을 “여자의 전과”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간 세계에서 미망인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느냐고 반문하며, “평생 그런 식으로 취급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욕당하며 사는 것 같아서 싫”(p.119)다며 겐지와 바로 헤어진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은 재혼도 하지 않고 평생 사회 냉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에 대항하는

29) お前の書面の未亡人というところに、田舎の方ではひどくこだわっているし、お前はまだ、一度も妻帯した事のない人間だから、なおさら、両親は心外で仕方ないのだという文面であつた。(p.119)

30) 羽矢みずき 전계서, p.9

31) 未亡人という宿命を、田舎の者達は、まるで、女の前科のように考えているけれども、君を連れて行つて、両親に見せさえすれば、すべて、わだかまりは解消するのだと、健二は口を酸っぱくして説明するのだけれども、百合子は一途に、固い気持ちになつていて、何の話しあいも寄せつけようとはしない。(p.119)

유리코의 이런 행동은 여성 스스로 인습에 속박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남편을 잃은 후의 여자의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남은 생애. 불안한 한 밤중의 꿈. 일생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사회는 어떤 동정도 하지 않는다. 상처가 나서 피가 줄줄 흐르는 모습을 사회는 명하니 바라볼 뿐이다. 미망인은 평생 반려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듯한 인색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다.<sup>32)</sup>

일반적으로 “미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직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죽은 남편을 따라 순사하는 것을 전제”<sup>33)</sup>로 하고 있었다. 이런 사고가 사회 전반에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겐지 부모님도 “미망인은 평생 반려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이런 생각은 유리코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요코와 스키모토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인습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어두침침한 장막”을 끌어 내릴 용기가 없었다.

서로는 애타게 그리고 있다. 비록 뜨거운 입맞춤과 강한 포옹만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마음속에는 서로의 전부를 이미 꿈꾸고 있음이 틀림없다. 다만, 서로의 환경이 서로의 열정 속에 어두침침한 장막을 내리고 있다. 그 침침한 장막을 잡아 찢을 용기가 없다. 소심한 두 사람의 마음속에 소심함만이 교차하고 있다. 지금의 내각이 어떻든, 노사협조가 어떻든 간에 서양이, 동양이, 지구가 그런 광범위한 문제 속에 아주 작은 깨알 같은 인간 각자의 사랑은 남자가 있는 한, 여자가 있는 한, 양성은 서로 끌어당긴다.<sup>34)</sup>

이렇게 일본의 오래된 도덕관은 미망인들이 기성관념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강요하고 있어 “여성들도 스스로 하나의 기성도덕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sup>35)</sup>이었다. 지요코 역시 유리코와는 달리 스스로 “기성 도덕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에 따른

32) 良人を失つたあとの女の生命とは、いったい何なのだろう。残された生涯。不安な眞夜中の夢。一生、避難民で暮す事に、社會は何の同情も示してはくれない。傷口が開いて血の噴き出るままの姿を、社會はぼんやりと見ているだけだ。未亡人は、一生、伴侶を求めてはならないかのような、けちな眼色でみている。それが世間というものなのだ。(p.81)

33) 竹内榮美子, 전계서, p.29

34) お互いは恋いこがれている。たとい熱い接吻と、固い抱擁だけのちぎりとはいえ、こうして、離れ離れていても、お互いの心の中では、お互いの全部をもはや夢みているにちがいないのだ。只、お互いの環境が、お互いの情熱のなかに薄暗いカーテンをおろしている。その薄黒いカーテンを引きちぎる勇気がない。気の弱い二人の心のなかに、気の弱さだけが、行きつもどりつしている。今の内閣がどうであろうと、労資協調がどうであろうと、西洋が、東洋が、地球が、そんな広々とした問題のなかに、ほんのゴマ粒ほどの人間の一つ一つの恋が。男があるかぎり、女がいるかぎり、両性は相引き、呼びあう。(p.109)

35) 福田清人・遠藤充彦, 전계서, p.156

“미망인에 대한 관념으로 자신을 얽매고 속박<sup>36)</sup>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지요코는 자식이 없는 유리코도 미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겐지와 결혼을 반대하는데, 스기모토가 아무리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요코는 스기모토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스기모토와 헤어질 생각도 해 본다. 전쟁미망인에다 병약하며, 아들까지 있는 자신이 스기모토에게 짐이 될 것 같아 헤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지요코는 유이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스기모토가 끝내 “어떻게든 해 나갈 수 있<sup>37)</sup>”다고 하자, 지요코는 “불가능<sup>38)</sup>한 “꿈같은 일”이라며 “아이가 딸려있고 몸이 약한 여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모험”(p.96)이라고 말한다.

스기모토도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남자의 욕망으로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바란다 해도, 그것은 공중에 뜬 풍선을 잡으려는 덧없는 노력에 불과<sup>39)</sup>”(p.113)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친의 기대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희망을 짓밟고 형제가 미망인을 아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숙명”(p.138)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기모토는 하는 수없이 일주일정도 계획으로 부모님을 뵙기 위해 시골로 내려갔다. 그러나 예상한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지요코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겐지를 찾아갔지만, 그 역시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지요코는 스기모토와의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한다.

그런데 겐지가 혼자서 하쓰시마(初島)로 떠나고 난 후에 스기모토가 돌아왔다. 스기모토는 바로 지요코와 유이치를 데리고 겐지가 있는 하쓰시마로 간다. 스기모토는 겐지에게 “형제가 단합하여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각자의 미망인과 결혼”(p.159) 하자고 제의한다. 그러나 떠난 유리코는 돌아오지 않았다.

스기모토는 “전쟁의 흔적 같은 방랑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요코와 서둘러 결혼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스기모토의 생각을 몰라주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스기모토는 끝내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평생 무적(無籍)인 채로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지요코와의 결혼을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활기분해졌다. 이렇게 복원병 스기모토와 전쟁미망인 지요코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전쟁미망인에 정절을 강요하는 인간성과 생활의 곤란함을 무시하는 사회의 인습<sup>40)</sup>”에서 벗어나 두 사람이 함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용기 있는 행동이기도 했다.

그러나 혼자가 된 겐지는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겐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36) 상계서, p.157

37) 板垣直子(1987)『林芙美子』『婦人作家評傳』日本圖書セン-タ, p.222

스기모토는 죽을 정도로 괴롭다면 차라리 밀선이라도 타고 외국으로 나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의하기도 한다.

“죽을 정도로 괴롭다면 차라리 밀선이라도 타고 한번 일본 밖으로 나가보는 거야. 너는 마음이 약해서 안 돼. 그런데 말이야, 우리시대는 가혹한 폭풍을 만난거야. 그 폭풍에 송두리째 자기 인생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하기는 일러. 이 바다 건너 저편의 나라들에도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세계의 조류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야. 한번은 변할 시기가 온 거지. 사상이라는 것도 몽땅 세탁하여 없애 버리는 거야. 나는 죽지 않아. 죽는 것 따위 절대 싫어……”<sup>38)</sup>

이런 스기모토도 처음에는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지요코와의 생활에 대한 희망으로 죽는 건 절대 싫다며 삶의 의욕을 보인다. 이렇게 형제가 미망인과의 이별과 결합으로 인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가까스로 스기모토와 지요코는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밤바다를 바라본다.

지요코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밤바다를 바라본다. 나는 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달빛을 가리고 소용돌이치는 바닷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속도도 거의 없으며 그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끝없이 소용돌이치는 바닷물은 흐르고 있는 것이다.<sup>39)</sup>

지요코의 모습에서 하야 미즈키(羽矢みずき)는 “어두운 바다의 소용돌이치는 바닷물의 흐름에 말할 수 없는 불안을 발견”<sup>40)</sup>한다고 적고 있지만, 필자는 지요코가 “지금까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기성관념”<sup>41)</sup>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라며 스스로 전쟁미망인이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기모토와 재혼을 결의하는 것으로 본다.

후미코는 당시 사회문제가 되었던 전쟁미망인에 대해 “세간에서는 구도덕으로 속박하려는

38) 「死ぬほど苦しいんだつたら、いつそ、密輸船でも乗って、一度、日本から外へ出て行ってみるんだね。お前は気が弱くていかん。そりやアねえ、お互いの我々の時代というものは、ひどい嵐を受けたんだ。その嵐で根こそぎ、自分の人生を見失ったとち嘆じるのは早い。この海を越えた向こうの国々だつて、我々とあまり変らない人生があると思うんだ。世界の潮流が少しずつ変化して来ているんだよ。一度は変わる時期が来ているのさね。思想なつてものも、根こそぎ洗濯して、揉み出してみることだなア。俺は死なないよ。死ぬなつてまっぴらだな。」(pp.158-159)

39) 千代子は息を殺してじいつと夜の海をみつめた。私はいつたい何を怖れていたのだろうか。月の光を溶かして、うず潮は昏く流れている。速度も見えぬながら、只、海鳴りの音を立てて、はてもなく、うず潮は流れているのだ。(p.161)

40) 羽矢みずき, 전게서, p.9

41) 福田清人·遠藤充彦, 전게서, p.158

풍조<sup>42)</sup>도 있었지만, 스기모토가 “지요코에게 사랑을 구하며 재혼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지요코와 “같은 환경에 놓인 불행한 여성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용기”와 “살아가는 희망<sup>43)</sup>”을 주었다. 끝내 지요코도 전쟁미망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전후 시대가 안고 있던 전쟁미망인의 문제를 “같은 인간으로서 특히 같은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sup>44)</sup>”하고 싶은 후미코의 마음을 담아 인습을 극복해 나가는 용기 있는 복원병에 의해 행복을 찾아가는 전쟁미망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 4. 결론

이상과 같이, 전후 불안한 일본사회에서 전쟁미망인과 복원병이 인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전후, 전쟁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되었다. 경제적 궁핍에다 민심마저 흉악해져 도둑이 들끓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를 보내기에 급급해 있었다.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전쟁미망인과 복원병의 생활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출정한 남편을 5년이나 기다리다 전쟁미망인이 된 지요코는 아들 유이치를 보육원에 맡기고 가까스로 요릿집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망인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쫓겨난다. 복원병 스기모토 역시 전장에서 목숨을 다해 싸우다 돌아왔지만,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구한다고 해도 언제 그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스기모토와 겐지 형제가 사랑하는 여인들은 전쟁미망인이다. 스기모토보다 먼저 겐지가 부모님에게 전쟁미망인 유리코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편지를 보냈지만, 반대한다는 답장을 받았다. 겐지는 초혼인데 유리코는 전쟁미망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에 비해 스기모토는 결혼하여 사별한 이력이 있으나 전쟁미망인 지요코는 아들 유이치까지 있다. 지요코는 스기모토가 아무리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승낙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작품에서 스기모토와 지요코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그려져 있지 않다.

42) 今川英子(2003)「林芙美子の作家的成熟-作品の底流するもの-」『林芙美子記念図書録』(財)新宿歴史博物館, p.55

43) 今川英子(2004)「林芙美子-主要作品解説-」『文藝別冊』河出書房新社, p.208 참조

44) 尾形 明子, 전계서, p.124

스기모토가 지요코와의 결혼을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아 직접 시골로 간다. 그러나 예정기간 일주일이 지나 돌아와서는 겐지에게 부모의 의사는 무시하고 형제가 단합하여 각자의 미망인과 결혼하지는 제의와 자신은 “평생 무적(無籍)”인 상태로라도 결혼하겠다는 것에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기모토는 “전쟁의 흔적 같은 방랑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요코와의 결혼을 서두른다. 이는 복원병이 사회 적응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결혼은 필요하며, 그 상대가 전쟁미망인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겐지는 유리코가 떠나고 난 후 마음을 잡지 못한다. 그러나 스기모토는 지요코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동생 겐지가 먼저 가 있는 하쓰시마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렇게 전쟁미망인을 사랑하는 두 형제를 모델로 사회 인습에 좌절하는 겐지와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가는 스기모토를 통해 인습을 극복할 의지만 있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있다. 즉, 사랑하는 남자가 그 가족과의 마찰에서 사랑을 포기하고 마는 상황과 남자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 끝까지 사랑을 지켜나가는 상황을 대비시켜 미망인도 어떤 상대를 만나는가에 따라 다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지요코 역시 “나는 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라며 지금까지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기모토와의 결혼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의 감정은 무시하고 사회의 눈치를 보며 행동해 온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하다. 이처럼 후미코는 당시 사회문제가 되었던 전쟁미망인을 구도덕으로 속박하려는 편견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성을 그려, 유리코는 물론 지요코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전쟁미망인들에게도 살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후미코는 전후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전쟁미망인과 복원병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시책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각자의 행복추구에 대한 노력이라는 사회성을 담은 신문소설로서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용기 있는 복원병 스기모토를 통해, 전쟁미망인 지요코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행복을 꿈꾸게 된 두 사람 앞에 햇빛을 머금은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는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다.

**【参考文献】**

板垣直子(1987)「林芙美子」『婦人作家評傳』日本圖書セン-タ  
今川英子(2003)「林芙美子の作家的成熟-作品の底流するもの-」『林芙美子記念図書録』(財)新宿歴史博物館  
\_\_\_\_\_ (2004)「林芙美子-主要作品解説一」『文藝別冊』河出書房新社  
岩淵宏子(2005)「昭和初年代から敗戦までの女性文學」『はじめて学ぶ日本女性文学史』ミネルヴァ書房  
尾形明子(1998)「『うず潮』」『国文学 解釈と鑑賞』63(2), 至文堂  
竹内栄美子(2010)「林芙美子『うず潮』」『日本古書通信』75(11), 日本古書通信社  
永原慶二(1984)「國際情勢の推移と日本」『高等學校日本史』學校圖書株式會社  
羽矢みずき(2006)「林芙美子『うず潮』論-隠蔽された<戦争未亡人>」『日本文学』55(11), 日本文学協會  
福田清人遠藤充彦(1966)「『うず潮』」『林芙美子 人と作品』15, 清水書院

---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

---

 <要旨>
 

---

### 하야시 후미코의 『소용돌이치는 바닷물』론

- 인습을 극복한 전쟁미망인과 복원병 -

전후, 일본의 불안한 환경에서 전쟁미망인과 복원병의 생활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전쟁미망인 지요코는 아들 유이치를 보육원에 맡기고 요릿집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미망인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쫓겨난다. 복원병 스기모토 역시 가까스로 직장을 구했지만, 그 회사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스기모토와 동생 겐지가 사랑하는 여인들은 전쟁미망인이다. 먼저 겐지가 전쟁미망인 유리코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진다. 불안해진 스기모토는 지요코와의 결혼을 위해 직접 시골로 가지만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겐지는 유리코가 떠나고 난 후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쓰시마로 떠난다. 그러나 스기모토는 지요코와 함께 하쓰시마로 가 바다를 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 두 형제와 전쟁미망인의 사랑을 모델로, 사회 인습에 좌절하는 모습과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지요코 역시 차츰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기모토와의 결혼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렇게 후미코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전쟁미망인과 복원병 문제가 정부시책보다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A Study on Humiko Hayashi's "UZUSIO"

- The war widow and Demobilized soldier overcame conven -

The Postwar life of war widow and Demobilized soldier got worse in the unrest circumstance. Jiyoko war widow left her son at the orphan and worked as employee in the restaurant. But she was fired from the restaurant because of wrong awareness about the widow. Demobilized soldier Sukimoto managed to get the work but thought suicide attempt for the anxiety that his company could close. Sukimoto and Kenji, his brother loved women such as war widows. Kenji wanted to get married to Yuriko a war widow. but they separated because his parents opposed the marriage.

Sukimoto also wanted to get married to Jiyoko, so went home for permission to get married but he didn't. Jiyoko was wandering after leaving her. but Sukimoto went Hatsusima with Jiyoko and confirmed their love seeing the sea. Like this, it was expressed in the book that the brother felt frustrated and overcame about the conventionality through their love. Jiyoko also recognized that she got free herself from restraints and then had to decide to get married to Sukimoto by herself. The writer, Humiko expressed her desire through the book that the problem of war widow and Demobilized soldier was solved by human nature, not a government policy.